

## 오늘(21일) 10시 영결식 진행

미시령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숨진 7명의 학생들에 대한 영결식이 오늘(21일) 본교 대운동장에서 진행된다.

장례차량은 오전 7시에 발인을 하고 8시 30분 서울대학 병원을 출발 9시경 우리 학교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어 친구들이 사망자들의 영정을 앞세우고 정문을 출발하여 동국관, 도서관, 사법대를 경유하고 학생회관과 본관을 지나 대운동장에 도착하여 10시부터 영결식을 치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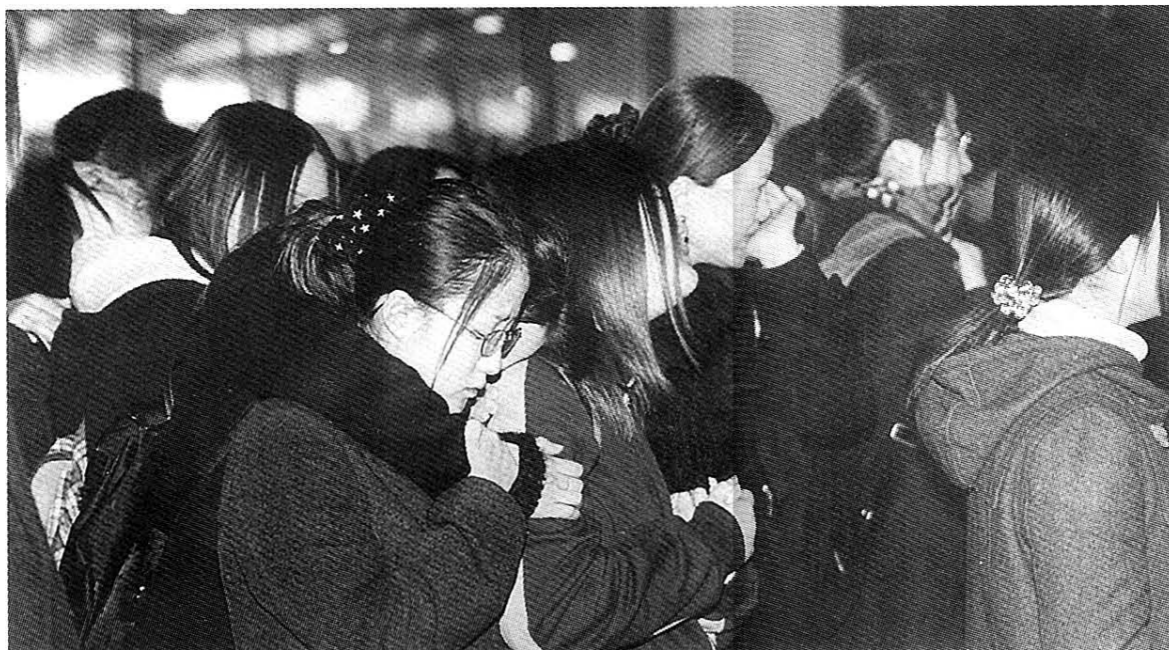
영결식은 송석구 총장, 권노갑 총동창회장, 유가족, 학생, 교수·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삼귀례 △독경 △영결사 △조사 및 조시 △분향 △사용서원 순으로 진행된다. 영결식이 끝나는 대로 벽제화장터에서 7명의 시신을 화장한 뒤, 유가족과 함께 장지로 출발할 예정이다.

한편, 사고는 지난 17일 2000년 새내기 새로배움터(이하 새터)를 준비하기 위해 속초로 향하던 통일관광 버스가 미시령 고개에서 전복돼 본교 7명의 학생이 숨지고 37명이 중경상을 입는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새터를 진행하기 위해 72명의 학생들이 행사 일정보다 하루 앞서 공연준비와 선전작업, 물품 운반 등을 위해 오전 11시 30분경 2대의 차량으로 나누어 승차했으며, 가는 도중 2호 차량에 브레이크 고장으로 이상이 발생하여 잠시 정지한 후 다시 출발했다.

오후 4시 52분 경, 2대의 버스가 미시령 정상을 넘어 가던 도중 미시령 정상에서 속초 쪽으로 1.5km 떨어진 커브길에서 1호 차량인 통일관광 소속 경기 78사 7493호 버스가 시멘트 방호벽을 들이받고 전복된 것이다.

이번 사건의 발생 과정에 대해 총학생회 산하 16대 학생복지위원회 유병곤 위원장은(산공4) "고갯길을 내려가면서 운전사가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듣는지 당황해 어쩔



지난 18일 서울대학병원 영안실에 모인 학생들이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다.

줄 몰라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경찰은 사고가 과속 또는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했을 수 있으며 차량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기 했다. 한편, 사고차량을 운전한 운전사(김길태·41)는 전날에도 같은 차량으로 같은 코스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져 피로에 의한 부주의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사고 직후 부상자들은 속초 시내에 위치한 6개 병원에

로 분산, 수용되었으며 지난 18일 밤에는 속초를 떠난 운구차량이 서울대학병원 영안실에 도착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기 위해 모인 3백 여명의 학생들은 가슴에 검은 리본을 달고 운구 차량을 맞이했으며, 시신은 서울대학병원 영안실에 안치됐다. 한편, 중경상을 입은 학생들은 이날 오후 고려대 구로병원을 비롯한 인근병원에 후송돼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김은선 기자

### 사망자 약력



**서현경**  
1980년 4월 19일 서울 출생  
1999년 2월 풍문여고 졸업  
3월 동국대 사회과학부 입학  
7월 소모임 "새로운 사회연구회", "동국문화회" 입회  
여름농활참가  
2000년 2월 새터 문에 준비단으로 참가중 차량사고로 사망.



**황근열**  
1978년 7월 15일 서울 출생  
1997년 2월 구로고등학교 졸업  
1999년 3월 동국대 자연과학부 입학  
2000년 2월 새터 자방단으로 참가중 차량 사고로 사망



**박현아**  
1980년 10월 14일 서울출생  
1999년 2월 미림여고 졸업  
3월 동국대 자연과학부 입학, "손짓 사랑회" 입회  
2000년 2월 새터 문에 준비단으로 참가중 사망



**김정은**  
1980년 4월 7일 서울 출생  
1996년 2월 광진중학교 졸업  
1999년 2월 건국대 부속 고등학교 졸업  
3월 국어교육과 입학, 민속극 연구회 '탈' 입회  
탈 사회부장으로 활동  
2000년 2월 새터 문에 준비단으로 참가중 사망



**김학운**  
1980년 5월 6일 출생  
1996년 2월 안청중학교 졸업  
1999년 2월 안법고등학교 졸업  
3월 국어교육과 입학, 민속극 연구회, '탈' 입회  
2000년 2월 새터 문에 준비단으로 참가중 사망



**이영훈**  
1980년 11월 18일 출생  
1996년 신흥중학교 졸업  
1999년 2월 학익고등학교 졸업  
3월 기계식품화학 공학부 입학, 2학기 반대표  
5대 기계식품화학 공학부 부학생회장  
2000년 2월 새터 자방단으로 참가중 사망



**김정태**  
1980년 1월 4일 서울 출생  
1999년 2월 서울 광성고등학교 졸업  
3월 전자전기공학부 입학, 손짓사랑회 18기  
2000년 2월 새터 문에 단원으로 참가중 사망

### 부상자 명단

#### 아리랑

▲김지현(생자부1)  
강동성심 820호 02-2224-2114  
▲최영순(사과부1)  
인천길 7078호 032)460-3114  
▲신창용(전전1)  
인천길 7078호 032)460-3114  
▲한명환(경영학부1)  
방지거 919호 02-453-6111  
▲최미애(경영학부2)  
방지거 2003호 02-453-6111  
▲권해린(자과부2)  
서울중앙 9153호 02-2224-3114

#### 탈

임지석(사과계열2)  
강동성심 506호 02-2224-2114  
백혜인(사과부1)  
강동성심 1009호 02-2224-2114  
하만조(사과계열2)  
방지거 105호 02-453-6111

#### 이규성(사과부1)

방지거 105호 02-453-6111  
정기훈(경영학부1)  
수원정형 제1중환자 0331)257-1119

#### 손짓사랑회

▲홍유미(전전1)  
고대구로 917호 02-818-6917  
▲홍운선(전자공94)  
고대구로 709호 02-818-6709  
▲현지석(전전97)  
고대구로 915호 02-818-6915  
▲배정아(컴통1)  
고대구로 358호 02-818-6358  
▲강형민(전전1)  
인천길 7078호 032)460-3114  
▲전진아(가교1)  
방지거 3002호 02-453-6111  
▲이영호(전전1)  
방지거 518호 02-453-6111  
▲이상민(전전1)  
방지거 902호 02-453-6111

#### ▲이형석(전전1)

방지거 106호 02-453-6111  
▲변영선(자과부1)  
영동세브란스 2760호 02-3497-2760  
▲장인현(전전1)  
서울중앙 9203호 02-2224-3114  
▲한상민(전전1)  
중대필동 608호 02-2260-2114  
▲이지은(사과부1)  
강남성모 병원치료

#### 동국문화회

▲안 철(경영96)  
강동성심 611호 02-2224-2114  
▲송영호(북한96)  
방지거 106호 02-453-6111  
▲신덕범(법학1)  
영동세브란스 2701호 02-3497-2701  
▲박정운(국문3)  
부산동의대 051)850-8526

#### 학생복지위원회

▲유병곤(산공93)  
고대구로 768호 02-818-6768  
▲방은영(신방96)  
고대구로 363호 02-818-6363  
▲유서화(수교2)  
고대구로 363호 02-818-6363  
▲한아진(철학2)  
방지거 702호 02-453-6111

#### 자원봉사단

▲김상혁(수교2)  
강동성심 710호 02-2224-2114  
▲이기연(경영(야)1)  
방지거 514호 02-453-6111  
▲최기훈(컴통1)  
방지거 913호 02-453-6111  
▲박정민(신방3)  
중대필동 620호 02-2260-2114  
▲박준수(국문3)  
노원을지 9106호 02-970-8096

###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지난 2월 17일 미시령에서 있었던 불의의 교통사고로 인하여 동국대학교 학생들이 다수 사상한 불행한 사태를 맞아 먼저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고로 인하여 불행히 화업을 멈춘 학생들의 왕생극락을 발원하며 다음과 같이 동국대학교장(東國大學校葬)으로 영결식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부상학생들의 신속한 쾌유를 빌면서 그동안 관심을 갖고 위로와 협조를 해주신 동문, 학부모 및 각계의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드리며 적극적인 구조활동과 치료에 애써주신 관계기관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 미시령 교통사고 사망학생 영결식

- 일 시 : 2000년 2월 21일 (월) 오전 10시
- 장 소 : 동국대학교 대운동장 (※연락처 : 장례위원회 ☎2260-8511~5)

2000년 2월 20일

동 국 대 학 교

### 성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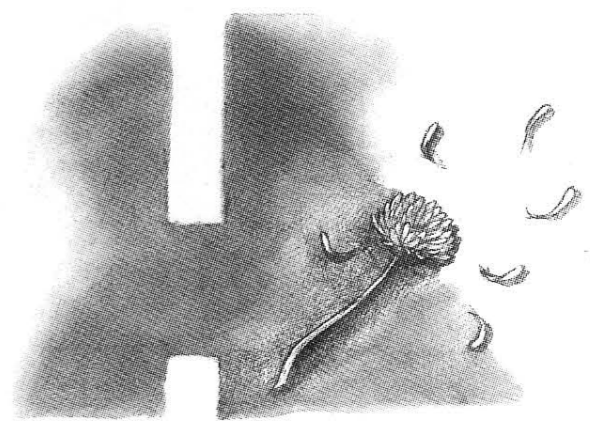
애절한 마음으로 '2000년 새내기 새로배움터' 사고관련 유가족 및 학부모님들과 일민이천 학우들께 올립니다.

우리 민족동국은 지난 시기 어려운 민족의 현실앞에서 민족의 동량을 길러내겠다는 건학정신에 따라 사회와 민족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 면학에 힘써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2월 17일, 뜻하지 않게 불행한 교통사고가 일어나게 됨에 따라 놀랍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달랠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제분들의 불행에 당하신 유가족과 학부모님들의 참담한 마음을 어떻게 위로해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새로 맞이하는 새내기들을 환영하고 보람있는 학교생활을 안내하겠다는 새내기 사랑의 정성으로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떠난 길에 재학생들이 당한 안타까운 불행을 저희들 또한 차마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교정에서 언제나 숭선수범하고 명량하며 활발하던 학우들이 이렇게 속절없이 우리의 곁을 떠나거나, 몸과 마음이 크게 상한데 대하여 우리 자신들의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하며, 학우들을 안전하게 지켜내지 못한 고통에 몸뚱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학교 및 관련 기관들과 함께 제반 사후대책을 신속하게 강구하고 있으며, 오늘의 이 불행한 사고로 인한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치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사고 구조에 적극적으로 애써주신 여러 기관의 구성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상학우들의 빠른 쾌유를 빌며, 유가족 및 학부모님들과 민족동국의 모든 구성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족동국 2000년 새내기 새로배움터 준비단  
사고 관련 학생비상대책위원회(총학생회)

二月二十一日, 마지막 등교... 삼철공



# 추 모 기 획

떠나보내는 사람들 - 여전히 우리는 함께이다



## 꿈

이길...

꿈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는데... 빨리 깨어나고 싶었는데...

아직도 내 마음은 너희들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어느 노래가사처럼 지금이라도 이름을 부르면 어디선가 대답을 할 것 같은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작년 12월 L.T.때가 생각난다. 우리 1년 함께 동아리일 열심히 하자고 밤새워 토론도 했었잖아. 그때 그 약속들... 왜 안지키는 거야. 지금 어디에 있는거야. 우리 얼마든지 열심히 재미있게 대학생활 할 수 있었는데.

왜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해야 되는거니. 우리, 누구에게 나쁜 짓 한 적 없는데 왜 우리가 이려고 있어야 하는거니. 난 계속 얘기하는데 왜 너희는 대답이 없는거야. 빨리 깨어나. 일어나. 친구들, 선배들, 우리들이 있던 말이야. 너희... 형, 누나들 이렇게 많이 본 적 없었잖아. 너희가 이런거 보고싶어 했잖아. O.T. 공연해야지. 그동안 연습한 건 어떻게 하리구.

정태야... 현아야... 정말 다시 볼 수 없는거니?

나 너희가 많이 보고 싶는데 너희도 나 보고 싶잖아? 너희는 하늘에서 우릴 볼텐데 왜 우린 못 보는 거야. 함께 한 1년이란 시간. 사랑방에서 한 얘기들 우린 절대 잊지 않을꺼야. 비록 몸은 가더라도 너희는 항상 우리들 마음속에 있을꺼야. 언제까지지...

혜혜... 이젠 술 먹다가 늦었다고 집에 안가도 되네. 이제 우리 밤새 놀자. 너희도 좋지?

나 절대 마지막이란 단어는 쓰지 않을꺼야. 하늘나라에서 어느 별이 되어 우릴 보겠지. 약속하자. 꼭 가장 빛나는 별로 있어야돼. 우리가 너희 보고싶을 때 잘 볼 수 있게. 알았지...?

이제 그만 가야지. 먼길 가야 할텐데. 가다가 힘들면 다시 돌아와. 꼭 둘이 손잡고... 친구들이 있잖아.

이제... 안녕....

손짓사랑회  
사랑동아들이.



### 그들의 뜻을 이어갑니다.

우리학교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다니... 개인적으로 제가 믿는 신에게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00학년 새내기들의 원만한 대학 생활을 위하여 방학 내내 아무 것도 주저하지 것이 없음에도, 남 모르게 열정을 다 바쳐 행사를 준비했던 그들... 운명의 시침을 달리하게 한 하늘이 원망스럽기조차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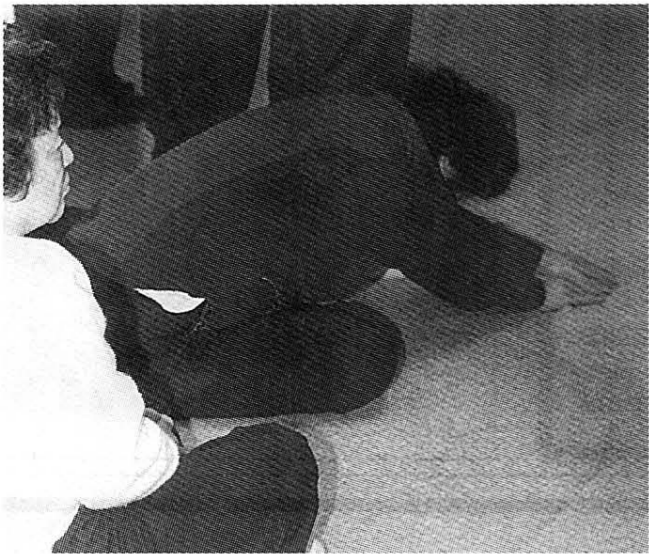
자원 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떠난 길이 이렇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이 되어버렸음은...

그들이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는가를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모든 동국인은 보다 더 노력하는 한해로서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위축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건 그들의 삶을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그들이 밤새 준비했던 행사는 재학생을 대표하여, 새내기들이 동국대에 대하여 경계성을 갖고, 더 자랑스런 동국인으로 우뚝 설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뜻을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은 모든 동국인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남은 우리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그들의 죽음에 대하여 애도의 뜻을 표하며, 부상당한 학우들의 쾌유를 바랍니다.

배용진(mk121@hanmail.net)



### 정은이에게

가시나무 숲속입니다

한줌 추억을 펼쳐도 날카로운 아픔이 더하고

실오라기 같은 웃음 한 자락 꺼내어도

그 바람에 흔들린 가시덤불에

마음이 헤치고

그리움을 조금만 키우려해도

다친 상처에서 다시 눈물이 납니다.

지금

한줌 추억이 되고, 웃음 한자락이 되고 작은 그리움 된

많은 영혼 하나 건져올리소서

상처에서 새 살이 돋고

또 가시께 찢리고

그 가시가 다 닳아 숲이 사라질 때까지

많았던 그 이름 잊지 않겠습니다

선일이가

### 현경이를 보내며

I 우리 현경이는

학관앞에 널브러져 울기도 잘합니다.

학관3층 문화회 방에 올라치면 벌써부터 현경이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오백원짜리 야채호떡에도 참 많이 행복해 하는 아이입니다.

II 현경아,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은 흘러간단다.

난 웃기도 하고.

내 웃음이 네 귓전에 들릴까 하여

그저 멍하여

네가 죽은 것인지 내가 죽은 것인지

이승과 저승의 경계는 어디인지 보이지도 않고

너를 생각하면

눈물처럼 달겨들던 생각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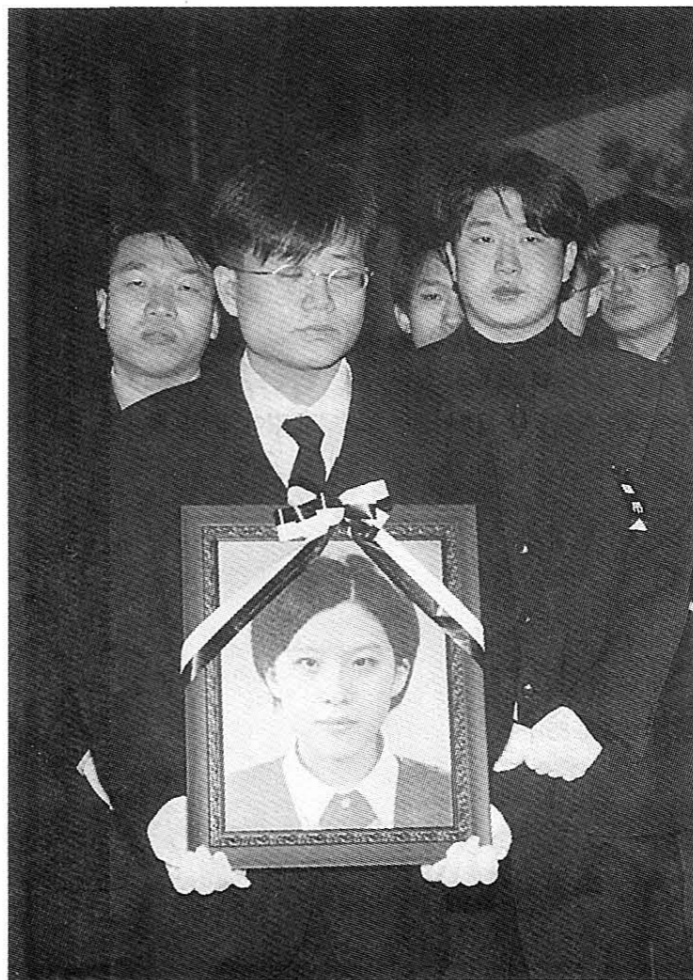
도망가 버리고

나는 이제 추억인 것을.

기억의 대상인 것을.

그저 미안하다, 그리고 진심으로 진심으로 널 사랑한다, 여전히 우리는 함께이다, 라고.

금열 언니가



# 친구처럼 낯익은 문구계의 젊은 리더...